

새단장 마친 소암기념관 손님 맞이

전시실·세미나실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 개관기념전 '소정 변관식, 몽유강산' 선배 내년 2월 19일까지... 전시 연계 강좌 마련

소암기념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선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전시실·세미나실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7개월만에 선보이는 전시는 개관기념전 '서귀소옹과 20세기 서화거장 VII : 소정小亭 변관식卞寬植, 몽유강산夢遊江山'이다.

소암기념관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개관기념전 '서귀소옹과 20세기 서화거장' 시리즈의 일곱 번째 전시로, 올해는 한국 근현대 한국화의 거장이자 금강산의 화가로 널리 알려진 소정 변관식(1899~1976)의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변관식의 작품은 갈필의 적묵법과 파선법을 통해 남성적이고 거친 분위기가 특징으로 대담하고 호방한 느낌을 준다.

이번 전시엔 그의 초기작인 '산수도' (1921년작,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소장)부터 50~60년대의 금강산을 소재로 한 대표작들 40여 점이 출품된다. 여기에 소암 현중화 선생의 서예작품 20점도 함께 전시된다.

소암기념관은 "몽유강산(夢遊江山)"이라는 전시제목과 같이 금강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천의 곳곳을 그려낸 소정 변관식의 작품들과 한라산과 제주의 자연을 작품에 녹여낸 소암 현중화의 작품들이 한



소정 변관식 작 '금강사계 6곡병' (1960년대, 민주문화재단 소장)

자리에 모여 마치 꿈 속에서 강산을 노니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13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한 행사로 이달 17일(오후 1시20분) 전시를

공동기획한 서울 예술의전당 이동국 큐레이터의 전시해설에 이어 미술사학자인 이원복 선생이 진행하는 전시강좌 '소정 변관식의 생애와 예술세계'가 예정돼 있다. 참가는 사전신청 없이 자유롭게 소암기념관을 방문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정지아 소설가 초청 북토크 15일 제주문학관 문학살롱

제주문학학교(운영위원장 박재형)가 이번엔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소설가를 초청해 '2022 도민문학학교' 북토크를 진행한다.

출간된 이후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순위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아버지의 죽음 뒤 장례식장에 모인 친척들을 비롯 지인들과 얽히고 설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마주하게 된 아버지의 삶을 풀어내고 있다.

김동현 평론가의 대담으로 진행되는 북토크는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데올로기의 의미와 '전직 빨치산'인 아버지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 작가와의 북토크는 이달 15일 오후 7시 제주문학관 문학살롱에서 진행되며,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070-4115-1038.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양태호 작 '正房瀑布' 포정 양태호 작가가 6년 만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제주 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은 이달 15일까지 제주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제주-싱가포르 젊은 음악인들 협업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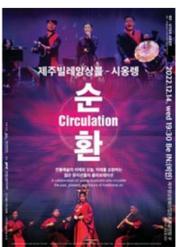
제주빌레앙상블-시옹렝 교류 연주회 '순환'

제주와 싱가포르의 젊은 음악인들이 협업하는 이색무대 '순환'이 14일 오후 7시30분 블랙박스 공연장 비인(Be IN:)에서 열린다.

이날 함께 공연하는 제주빌레앙상블과 싱가포르 시옹렝(Siong Leng)은 앞서 두달 간 비대면 워크

숍과 회의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음악을 이해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대한 미래비전 등을 공유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두 단체 모두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와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음악작업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주빌레앙상블은 이날 해녀 문화가 담긴 제주민요와 음악을, 싱가포르 시옹렝은 중화권 주요 방언인 민난어를 바탕으로 수천 년 간 이어온 난인(南音)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도는 두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담은 무대와 함께 젊은 음악인들의 시공을 초월한 협업으로 재탄생된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이 도민들의 연발 문화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장권은 공연장 누리집(www.be-in.kr)에서 온라인으로 예약(104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42석이 선착순 배부된다.

오은지기자

실버 합창단 기념 연주회

제주문화원 실버합창단(단장 김순이)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가 이달 20일 오후 6시30분 제주문예회

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1부 가곡의 무대, 2부 제주어 합창 무대, 3부 가요와 함께하는 무대, 4부 미래를 위한 합창곡과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수축상
CONGRATULATIONS

국무총리표창



강 맹 진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장)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제일동
(강동녀 조시권 강민경 고창민 강호진 김효정)

수축상
CONGRATULATIONS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원 방 민
(제주감귤농협 중문감귤단지협의회장)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문감귤단지협의회·부녀회·청년부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감귤부문 최우수상)



양 용 석
(부: 양광순 · 모: 현애순)

2022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감귤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양해운(주) 임직원 일동

진축금
CONGRATULATIONS

육군준장



양 진 혁
(부: 양정보 · 모: 서인순)

육군준장 진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양씨 천호공파 연동계 문중회
회장 양 석 진 의 종친 일동



황학주의 제주살이 (64)

그녀를 방문했다

그녀를 방문했다. 음악은 없었지만 집 안 어디엔가 선율을 지닌 바람이 다니는 것도 같았다. 부락의 끝자락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마을 당근밭과 달아 있으며, 그녀의 집터 또한 지난날 당근밭이었다. 입구에 있는 첫 번째 건물은 서재이자 일종의 사랑채이다. 강력계 형사반장으로 밤낮 현장을 뒀 경찰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근년에 명예 퇴직을 한 그녀는 거처서 손님

(女警)의 전설'이라 불리고, 한국 최초의 강력계장을 맡은 여성이며, 지금도 그 기록은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부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들을 많이 맡은 것은 일과의 인연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완수해 낸 비결은 분명히 그녀의 각별한 노력과 능력 그리고 여성의 장점을 살린 결과물이다.

이형물들 사이로 우도봉이 멀리 바라보이는 마당에 그녀는 자신의 집과 공방 등을 마련했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의 범인을 쫓고 범인의 진술을 끄집어내고 그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의 판단형 사랑채 형식이다. 그리하여 방문자는 여기 어느 층계장에서 잠시 세상사를 던져놓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암시를 풍긴다.

지형물들 사이로 우도봉이 멀리 바라보이는 마당에 그녀는 자신의 집과 공방 등을 마련했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의 범인을 쫓고 범인의 진술을 끄집어내고 그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의 판단형 사랑채 형식이다. 그리하여 방문자는 여기 어느 층계장에서 잠시 세상사를 던져놓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암시를 풍긴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그녀의 언니가 감자떡과 포도즙에 들깨를 탄 경상도식 전통 음료를 만들어 건넵었다. "그냥 드셔보세요"라는 아름다운 말을 들었다.

그녀는 구좌읍 하도리에 산다. 고향인 경북 영덕과 환경이 비슷한 곳을 찾아 이주한 것인데, 어린 소녀는 매일같이 영덕 밤바다 소리를 들으며 일기를 쓰고 잡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글쓰기를 좋아하고, 특히 인간의 감정과 관계에 대한 사유를 기반으로 한 저서를 준비하고 있다. 세간에 잘 알려진 그녀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글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녀가 한국 '여경

우리는 그 무엇인가-그 대상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어떤 사물이든 간에-빛을 쬐는 사실을 잊거나 그런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쉽다. 우리 사회는 그녀와 많은 그녀들에게 수고 많았으며 고맙다, 라는 말을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일을 했다는 말이 있을 뿐. <시인>

우리는 그 무엇인가-그 대상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어떤 사물이든 간에-빛을 쬐는 사실을 잊거나 그런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쉽다. 우리 사회는 그녀와 많은 그녀들에게 수고 많았으며 고맙다, 라는 말을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일을 했다는 말이 있을 뿐. <시인>